

■ 제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한달 / 제주경제는 빨간불

경제지표 위험수위… 실물경제 ‘충격파’

무사증·국제선 초유의 중단
관광객 줄며 모든 업종 울상
“도민들 지갑마저도 닫혔다”
발 빠른 대응방안 마련 시급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지역의 경제지표를 모두 위험수위로 몰아넣고 있다. 소비 부진과 함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며 지역경기는 그야말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차산업과 관광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제조업과 건축업 등도 유탄을 맞으며 위경이고 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이 얼마큼 빨리 이뤄질 지가 제주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큰 변수다.

▶봄은 왔건만, 멈춰선 제주경제=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일부터 제주지역에 대한 무사증 출입제도가 일시 중단됐다. 제주항공 국제선은 지난 14일부터 중국·일본·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 5개국 26개 노선에 대한 운항을 모두 멈췄다. 1968년 국제공항 인증을 받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제주를 찾은 누계 관광객은 216만9041명(내국인 199만4356명·외국인 17만4685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8만6529명(내국인 259만5478명·외국인 29만1051명)에 견줘 24.9%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에서 직접



19일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도로에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난 2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55.1% 급감했다. 이에 따른 각종 호텔과 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률은 규모에 따라 5~40%대로 떨어졌고, 렌터카 이용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는 오는 5월까지 제주를 찾았던 수학여행단의 줄 취소로 인해 현재 예약률은 제로 상태다. 때문에 차량번호판을 떼 운휴에 들어갔다.

식당가도 힘겹기는 마찬가지다. 관광객이 크게 줄 데다 도민들의 소비부진도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밖에 재래시장, 오일장은 물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시 누웨마루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대형마트의 매출도 급락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갑 닫은 관광객·제주도민=관광객 급감에 제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분기별 20~3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제주지역 면세점들이 울상이다. 매출액 유지는 고사하고 영업시간 단축에, 휴직에, 무급휴가로 이번 사태를 근근하게 버티고 있지만 버겁다.

제주지역 소비심리도 상당 부분 위축됐다. 3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2.3(100 기준, 0~200)으로 전월대비 8.7p 하락, 2018년 9월 표본 개편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던 1월 4953건에 비하면 1/3 수준이다. 향후 경기전망 CSI(69)도 암울하다.

노지감골 판매 부진, 수산물 출하량 급감, 수출입 금액 감소 등도 모두 어려운 지역경기를 반영했다. 2월중 도내 기업의 업황BSI는 41로 2006년 1월 월단위 편제 후 14년 만에 최악이다.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지수도 67.9로 지난해 2월(62.5)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에 따른 고용전망,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업도 유탄을 맞았다. 1월중 건축 수주액은 110억원에 불과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의하면 3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41.6(전국평균 51.0), 분양경기실사지수는 54.5(전국평균 66.7), 입주경기실사지수는 55.5(전국평균 69.7) 등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경기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방역활동 강화를 통한 청정 이미지 구축은 물론 진정사태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위한 범도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칠성로상점가조합 임대료 인하 동참

공공 이어 민간으로 확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물 임대료 인하운동이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건물주에게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조합(이사장 김선애)은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상생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가 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조합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은 올해 임대료 10% 인하 적용, 지난해 받은 임대료의 50% 반환, 5~15년간 임대료 동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애 이사장은 “어려운 점은 월 단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타 지역에 비해 제주에서는 연 단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연세 관행 때문에 동참하는데 다소 곤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운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수출지원센터(센터장 김광수)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찬민)는 이날 칠성로상점가진흥조합 회의실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적극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간담회에는 제주도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훈 제주본부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종현 제주센터장, 기술신용보증기금 김상호 제주지점장, 제주신용보증재단 김치훈 소상공인지원센터장과 칠성로상점가조합 상인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의 전국적인 추진경과와 도내에서의 참여사례 및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 등을 설명이 이뤄졌다.

백영탁기자



범제주농협공동방역단 읍면 92개교 방역활동

범제주농협공동방역단(단장 백희병, 이하 방역단)이 오일장에 이어 도내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활동에 나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12일 출범한 방역단은 제주지역 5대 오일장에 대한 정기방역에 이어 18일 하귀1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일까지 도내 읍·면지역 92개 학교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방역은 제주시 3개 권역, 서귀포시 2개 권역으로 나눠 15개 방역조를 편성해 이뤄지고 있다. 방역활동에는 농협은행 사무소장 봉사회(회장 이창수 남문지점장) 회원 30

여명을 비롯해 제주축협(조합장 강승호)과 서귀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 소유의 방역차량 5대가 투입되고 있다.

방역단은 방역차량을 이용해 학교 건물 주변과 운동장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돌봄교실, 교무실, 행정실 등 방역이 시급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방역하고 있다.

방역단은 도민들이 많이 찾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뿐만 아니라 오일장 등 방역 사각지대, 공공시설, 농촌지역 등으로 방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방역단은 19일 기준으로 제주시와 한림오일장을 비롯해 농촌학교 34개교에 대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백영탁기자

농협중앙회 대의원에 제주 조합장 7명 선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최근 제주시·서귀포시운영협의회 및 전국 품목 농·축협 협의회를 개최해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 7명을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출된 대의원은 ▷제주시지역 고봉주 제주시조합장·김군진 한경조합장 ▷서귀포시지역 김성범 중문조합장·현영택 서귀포조합장 ▷지역축협



고봉주



김군진



김성범



현영택



강승호



송창구



고권진

강승호 제주축협 조합장 ▷품목농협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품목축협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다. 임기는 21일부터 2022년 3월 20일까지 2년 간이다.

중앙회 대의원 조합장은 전국 1118개 농·축협에서 293명을 선출하며 제주지역에는 지역농협 4명, 지역축협 1명이 배정됐다. 전국 과수계 24개 농협에서 8명을 선출하는 품목

농협에서는 제주감귤농협 송창구조 조합장이, 전국 양돈계 7개 축협에서 3명을 선출하는 품목축협에서는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이 대의원으로 각각 뽑혔다.

백영탁기자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땅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 자 자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해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병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 립 종 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히로시마7호
● 궁천번이지
● 천전(가외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번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